

함평군, 생태하천 복원 지역활성화 ‘시동’

함평천권역 개발사업 용역 착수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목표
산책로 생태학습 공간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홍수 예방 기능



전라남도 함평군이 생태하천 복원과 지역활성화를 아우르는 미래 비전을 담은 ‘함평천권역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16일 함평천권역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1일 함평군청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은 치수(홍수 대응) 기능 강화, 친수(하천 접근성 개선) 공간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은 물론 자연을 품은 숲길과 생태네트워크 조성 등 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종합 개발 계획이다.

함평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예방 등 하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동시에 산책로와 생태학습 공간 확대, 습지와 자연형 호안 등을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할 전략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마련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숲길과 녹지 축을 연결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함평군은 마스터플랜을 2026년 상반기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세부 설계와 예산 확보를 거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함평천 일대를 생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활권으로 재편하고 장기적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자연과 지역이 함께 숨쉬는 미래형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며 “군민들이 걷고 머물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함평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나주시, ‘상담데이’ 병행 운영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의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전문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한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금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지방세 등 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시민들이 전문가 상담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현재 시에서는 총 5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유선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데이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이 이뤄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 운영
장성군, 매주 화·일요일 점심

전라남도 장성군이 지난 5일부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 2층에서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을 운영 중이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한상’은 35종 안팎의 풍성한 음식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고급 ‘한식뷔페’다. ‘한 끼의 밥상’, ‘정을 담은 장성의 한상’이라는 의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3시)에만 운영한다.

매장 규모는 총 1026㎡로 ‘한식뷔페존(zone)’, ‘과일카페존’, ‘쿠킹클래스’, 교육장 등이 들어서 있다. ‘한식뷔페존’은 2인석 30테이블, 4인석 56테이블, 단체석 26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는 물론 단체 예약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식재료’다. 음식에 쓰이는 대부분의 재료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약정농가들이 공급한다. 이른 아침 수확한 먹거리로 점심 요리를 만드니 신선함은 물론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 정기적인 잔류농약검사와 농가 교육도 실시해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도 확보했다.

가족, 모임 등 특별한 날에 찾을 수 있도록 음식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해 염도를 조절하고 좋은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가격은 요일에 상관없이 성인 1만 5000원, 학생 1만원, 미취학아동 6000원이다.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과일카페존’에선 장성산 과일로 만든 주스와 커피, 음료, 간식 등을 판매한다. 차 한잔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쿠킹클래스’와 교육장은 농가 교육과 고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한다.

장성군은 오는 19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3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정식 개장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며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이 건강한 외식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 로컬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지난 11일 담양군 봉산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하지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수확된 감자는 150여상자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봉산면 하지감자 나눔 실천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이 지난 11일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재배한 하지감자 150여상자를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했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봉산면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

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확한 작물을 이웃과 나누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봉산면은 유휴농지를 활용해 감자 외에도 열무, 배추, 들깻잎, 마늘, 무 등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매달 취약계층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활동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김미심 봉산면장은 “더운 날씨에도 땀 흘려 농사를 지은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하지감자를 드시는 모든 분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기부자 선택폭 향상 목적
7월1일부터 4일까지 접수

전라남도화순군은 16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은 지역 대표 특산물과 우수 상품을 발굴·선정해 기부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화순군은 파크골프장 이용권, 화순사랑상품권, 미니파프리카, 벌꿀 세트, 손질 민물장어, 요구르트 세트 등 29개 업체 46개 품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안정



적으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한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예(산)품 △관광서비스 등으로 공급업체는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의 가격대를 달리하여 제안할 수도 있다.

신청·접수는 7월1일부터 7월4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준비해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본관 1층)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화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업체의 안정성, 우수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8월부터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 서식은 화순군청 누리집을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061-379-3323)에 문의하면 된다.

주창형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화순에 애정을 전해주시는 기부자들에게 한층 다양하고 품질 높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담양군, 10인 이상 업체 대상

전라남도 담양군은 17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관내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해 광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사업체 분포, 산업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각종 정책이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2024년 중 조업실적이 있으며 12월 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90개소)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등 총 13개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면접조사와 함께, 인터넷,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병행한다. 응답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통계청에서 잠정 발표되며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KOSIS)에 최종 수록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우리군 광업·제조업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조사 대상 사업체는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